

자비 실천하는 지역문화 공간 탄생

통도사 9월 5일 영축문화회관 개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는 9월 5일 지역문화와 포교의 중심 역할 마련을 위한 영축문화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상 5층 규모의 영축문화회관은 하북면 순지리에 위치 구 통도사유치원의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총면적 대지 16,528㎡(5,000평) 건평 2,644㎡(800평) 규모다. 현재 1층 어린이법회 공간과 어린이 도서관, 마하 이주민행복센터 2층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문화재지킴이교실, 청소년 법회 공간과 사무실, 영축환경위원회, 포교사회 3층 신도회, 청년회, 회의실 4층 법당, 5층 도서관이 들어서 있으며, 향후 지역 문화의 선도와 자비실현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주지 원산 스님은 개관식에서 “성장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결실의 가을을 맞아 과거 유적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될 영축문화회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방과후 공부방, 다문화가족 문화공간, 탈북자 지원 등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복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역 국회의원은 “문화센터 개관을 통해 통도사가 한국불교의 중심,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데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을 비롯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



통도사가 9월 5일 지역문화와 포교의 중심 역할 마련을 위한 영축문화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대지 5천평 규모에 지상 5층 건물
법회공간과 도서관 등 갖춰
방과후 교실·탈북자 지원 등

원, 박수근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시민 불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통도사 포교국장 선본 스님은 “영축문화회관은 현재 실행단계 위주로 입주해 있지만 10월까지 지역현황과 사찰별 모

범사례를 입수해 지역단체와의 결합 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통도사다운 독자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한 4층 법당은 시민·불자들을 위한 무료 결혼식장으로 대여하고, 5층 도서관 역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도사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불법의 인연을 이어줄 어린이 불서 기증을 신청 받고 있다. 기증 받은 불서는 현재 1층 어린이도서관에 소장된다.

박경수 부산시시장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진정한 화두공부”

9월 2일 부산연합회 수불 스님 특강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9월 2일 부산MBC아트홀에서 ‘하반기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불 스님 몽산법어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초청특강에는 조계종 연합회장 수진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을 비롯 시민불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수진 스님은 특강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조계종부산연합회’ 승인을 받았다”며 “성도제일 기념 대법회, 종단 교육원 인증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겠다”며 법인 설립의 취지를 전했다.

수불 스님은 특강에서 “화두공부에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참의심에 들어간다”며 “물이 80도 90도에 멈추어서는 끓지 않고 100도가 되어야 비로서 끓는 이치와 같다”며 간화선 수행의 요지를 강조했다.

특히,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 “부산에는 조계종 소속스님이 400여명이 상주하고 있어 스님들의 결집



조계종부산연합회가 9월 2일 부산MBC아트홀에서 ‘수불 스님 몽산법어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과 소통을 바탕으로 범종단적 교류에도 앞장서 부산 발전과 한국 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10월 14일~11월18일 매주 월요일 오후2~5시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대강백 무비스님의 ‘서장’ 특강을 진행한다. 총 5회 5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경수 부산시시장

삼광사-부산시설공단 사회공헌 위해 손잡다



삼광사와 부산시설공단 업무협약식 장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이 9월 2일 삼광사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광사는 공익사업인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 돌기, 템플스테이 등의 사업에서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공단의 시책사업 홍보와 공원 및 각종 시설의 환경 활동과 봉사자 지원 및

다양한 후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지 무원 스님은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머리를 맞대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웃음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시시장

추석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

추석을 앞두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9월 13일 오후 2시 양정정소년수련관 3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결식 및 독거 장애인·노인 등 총 150세대에게 쌀과 라면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전달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노인들이 직접 준비한 라인댄스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051)867-9119

박경수 부산시시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주차장,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멀리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외라도 가려는 사람들에게 대도시 근교의 사찰은 정말 딱 들어맞는 여가공간이 아닐 수 없다. 산 좋고 물 맑은 자연이 거기에 있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문화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예전에는 사찰이 단순히 종교공간으로만 여겨져 불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은 사찰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찰이 종교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과 더불어 자연을 향유할 수 있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볼만한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야말로 사찰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

는 것이다.

사찰이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도시 근교의 사찰은 불자 말고도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게 되면서 당장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이다. 심지어는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해지다보니 해당 사찰에 적을 둔 불자들이 차를 세울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대도시 근교의 여러 사찰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증설하는 일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사찰의 주차장은 대부분 사찰입구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사찰의 주차장은

산문이나 일주문과 더불어 사찰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특히 훌륭한 자연환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는 주차장도 자연의 일부가 될 정도로 잘 만들어야만 제격이다. 그런데 당장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보면 나무 한그루 없이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심에서조차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바닥에 잔디블럭을 깔아서 복사열까지도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연친화적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에 녹음수를 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사찰의 주차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찰환경은 일반적인 환경과는 조금이라도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회장)**



콘크리트로 급하게 만든 사찰 주차장에 나무를 심으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사진은 경기도 보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 업무협약

불교광장 회원일동은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대불사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일원 가람정비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합니다.

불교광장
자성과 쇄신! 불교발전의 길을 종도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무국 02)723-9341 | 팩스 02)723-3303 | 이메일 bulgyo2013@hanmail.net